

군산대-중앙대, 상생 협약

해양수산바이오 등 분야별 연구별 협력

군산대학교는 지난 20일 대학본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대 광병선 총장, 양현호 대외협력본부장 최강득 교무처장, 중앙대의 박상규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골자는 ▲모빌리티, ICT, 해양수산바이오, 문화 융·복합 분야 연구 협력 활성화 ▲공유, 공간, 공생 등 화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역량 강화 ▲양교 화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문화 교류의 장 마련 및 운영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입학 자원 공유를 통한 공동 입학 홍보 프로그램 운영 ▲양교 특성을 연계한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 활성화 활동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교육환경 및 시스

템 구축을 위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되었다.

본 협약과 관련해 군산대 광병선 총장은 "요즈음 각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대학의 강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상호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대 박상규 총장은 "협약에 모빌리티, ICT, 해양수산바이오, 문화 융복합 분야 연구 등 양교가 집중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서로 힘을 합한다면 이번 협약이 상호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서수면은 (주)동우팜투테이블(대표 이계창)이 중박을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해 달라며 포장용 삼계탕 200개를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수면 취약계층에 '삼계탕'

군산시 동우팜투테이블, 중박 맞아 포장용 200개 기탁

군산시 서수면은 (주)동우팜투테이블(대표 이계창)이 중박을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해 달라며 포장용 삼계탕 200개를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매년 주민들에게 삼계탕 식사 대접, 백미 기탁, 사람의 김장 나누기를 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득이하게 식사대접 봉사를 할 수 없어 물만 부어 끓이면 간편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우보급 사골삼계탕을 기탁

해 직접 전달했다. 이계창 (주)동우팜투테이블 대표이사는 "올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삼계탕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동우팜투테이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섭 서수면장은 "여름 무더위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계창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성을 담아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여름철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실시

토사유실 등 집중점검

군산시는 여름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임야, 노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약 1,200여 개소의 태양광 발전설비 중 풍수해 취약지역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 태양광 모듈 결속 사항과 토사유실 가능성, 건축물 상단의 적재 하중의 적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27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기상 악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고사태에 대해 홍보하고, 기상 특보 발표 시 관내 주요 발전시설의 예찰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내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요령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발송



군산시는 여름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조

치 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안전점검 실시 요령과 사고발생 시 대처 방법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익산교육지원청, 교육발전 협력 맞손

원광대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21일 원광대는 지난 20일 익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갖고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의 진학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대학 및 초·중·고교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영재교육과 협동강

의, 동아리 활동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로진학박람회 전공특강, 설명회 등 입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진로교육, 인성교육, 상담활동을 위한 초청 강의 등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대학시설 사용 및 첨단장비 활용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활동 지원, 교사연수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김재훈 기자

개정동 금호2차 부녀회, 중박 맞아 삼계탕 나눔

군산시 개정동은 금호2차아파트 부녀회(회장 송효숙)가 중박을 맞아 아파트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날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폐지를 모아 매월 25일 아파트 통로에 내놓으면 부녀회 임들이 이를 수거해 발생한 수입으로 진행했다. 부녀회는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할 여름나기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40마리를 전달했다.

송효숙 금호2차 부녀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모이기가 어려워 가까호호 방문, 인부를 살피며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힘을 내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속진 개정동장은 "가민히 있어도 땀방울이 맺히는 요즘 내 이웃을 위해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부녀회원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아동보호체계 우수사례 복지부와 간담회

익산시가 아동보호체계 운영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21일 익산시를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익산시 아동보호체계 운영방식과 사례공유, 당면 문제점 및 보완계획 등이 논의됐다.

시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학대(의심)사례 조사, 보호결정·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소개했다.

시는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담 IT팀을 구성했으며 의료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공동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군산시 고용·복지 상담 원스톱 호응

군산시의 다양한 복지제도 안내와 시민금융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조촌동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센터에는 군산시, 고용노동부,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 일자리고용공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복지센터, 미소금융재단 등 9개 기관 직원 5명씩 배치돼 있다. 국민취업제도, 취약계층 자활 및 복지종합상담, 구인구직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2명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